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왕과 대제사장: 기드온 아니면 하나님? [사사기 8:22-35]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22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 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24 기드온이 또 그 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찌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 고 걸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 기드온의 청한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일천 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러싼 사슬이 있었더라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날 동안 사십년에 그 땅이 태평 하였더라 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 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인이었고 31 세겔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 라 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 실에 장사하였더라 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35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라이언 킹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왕이 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 람은 없어, 거기에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만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여기를 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하루 종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 오, 나는 왕이 되는 것을 기 다릴 수 없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물리친 후 기드온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거절하기 얼마 나 어려울까요? 이스라엘은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빠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 드온을 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본 사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나눈 백성을 봅니다... 하지 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5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 나 여호와 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면 , 우리는 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겁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데 집중될 때, 그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 사하지 않을 때, 그 초점은 항상 내 자신과 자신 스스로의 영광에만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응답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제에서, 인생의 결정에서, 봉사할 기회에서, 리더로 부름을 받을 때..... **권력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기드온: 그의 입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축적하고, 많은 아내와 일흔 명의 아들을 두었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는 아들의 이름 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란 의미를 가진 "아비멜렉"이라 불렀습니다. 더 나쁜 것은 전리품으로 예봇을 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봇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을 더욱 큰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열망 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음행하였고, 그것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올라 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본문 33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로마서 2장 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 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충분성은 환상과 계시에 대한 주장을 통해 의문시됩니다... 또한 예배의 합법성은 대체 예배 스타일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또한 모든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12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선 불완전한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높은 도덕적 근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성경 3장에 걸쳐 기록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기드온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의 교훈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어느 부분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절대 바꿀 수 없어."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 말씀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주도권이며,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체사장 되신 예수님; 그 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희생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분의 다스림과 풍요로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분의 영광 안에 그 분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계속 공급하고 채우십니다!